

스바냐 Zephaniah



FINAL DECADES of the SOUTHERN KINGDOM (SEE 2nd KINGS 22-23)



1-2:3 JUDGMENT ON JERUSALEM

2:4-3:8 JUDGMENT ON THE NATIONS & JERUSALEM
...AGAIN!

3:9-20 HOPE FOR THE NATIONS & JERUSALEM

서론: 스바냐서의 역사 배경과 구성

스바냐 선지자의 책임이다.

스바냐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몇 십년, 요시야 왕 때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땅에 우상들을 없애고 성전을 회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려고 진정한 변화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사람들의

삶 속 깊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역시 교만함으로 전장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과 맞서 싸우게 하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여러 해 전부터 그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경고해 왔습니다. 이 작은 책은 바로 그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시집입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원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는

여호와와 심판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둘째 단원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임하는 심판과 아울러 모든 열방에 임하는 여호와와 심판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단원은 하나님의 심판 이면에 모든 열방과 예루살렘을 위해 아직도 남아 있는 소망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1. 혼합주의 예루살렘의 운명

첫째 단원은 창세기 1장에 정 반대가 되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정연하게 만드신 세상이 무질서와 어둠과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계속해서 읽다 보면, 스바냐가 이 이미지들을 발전시켜 결국 예루살렘 성 세상이 맛을 결말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의 모든 체제가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범했던 모든 지도자들과, 사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리고 빌려주는 경제의 중심, 등등 모든 것들이 성벽과 함께 흔적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처럼 거의 종말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는 큰 군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군대를 사용하셔서 이 심판이 임하게 하실지 스바냐는 한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가서와 하박국서를 보아서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스바냐가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예루살렘의 흥망성쇠를 총지휘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바로 그 사실이 스바냐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그 운명을 피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첫 단원을 마치는 시에서 그는 예루살렘 가운데 누구든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들이 신실한 남은자들이 되고, 그들이 회개할 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 모든 열방과 그들과 나아진

예루살렘의 의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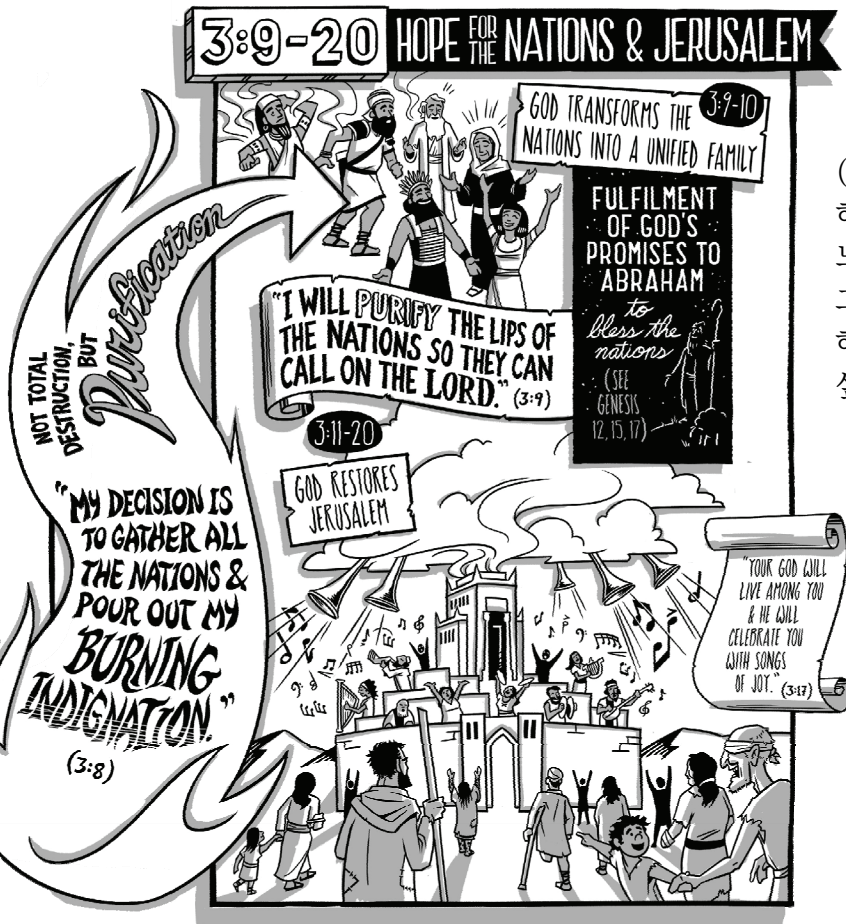
둘째 단원에서 스바냐는 그 관점을 넓혀 유대 주변의 모든 나라들, 블레셋, 모압과 암몬, 심지어는 앗수르까지 포함시켜 말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을 부패와 폭력과 교만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들 역시 모두 바벨론 앞에 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단원의 마지막에 선지자가 겨누는 표적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과



제자상들이 모두 다 부패하고 폭압적이 되어 그들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둘째 단원은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들을 모으시고 당신의 불같은 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처럼 사르는 불이 되어서 맹렬하게 이 땅의 악을 삼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시사하는 그 다음 시행도 완전히 의외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불은 사람들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들을 정결케 합니다.

3:1-8
...INCLUDING JERUSALEM!
GOD DOESN'T EVEN RECOGNIZE HIS OWN PEOPLE ANYMORE...



이 단원의 결론부에서는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들의 중심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그 회복된 성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케 되고 변형된 (transformed) 신실한 남은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놀라운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도 시인처럼 함께 노래하고 싶어하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기쁨의 노래로 너희를 기념할 것’ 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노래는 이와 같이 버림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상한 자들을 그분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로 끝납니다.

3. 모든 열방과 예루살렘의 소망

따라서 마지막 단원은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열방을 치유하시고 연합된 한 가족으로 만드실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결케 된 다음에 모든 열방은 그들의 악에서 돌이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예전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복주시는 방도를 찾으시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론

물론 다른 선지서들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이 작은 책 스바냐서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관한 가장 강렬한 이미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공의는 다름 아니라 사람의 악과 폭력에서 당신의 세상을 지키고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전과 평화 가운데,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에게 또 이 세상 피조물들에게 행하는 끔찍한 악행들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측면, 즉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을 다 견지하라고 강권합니다. 그 둘을 모두 발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둘 안에 우리 이 세상의 장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의 내용입니다.

FINAL DECADES of the SOUTHERN KINGDOM (SEE 2nd KINGS 22-23)



ZEPHANYAH

ZEPHANYAH CONTAINS VERY INTENSE IMAGES OF GOD'S



1-2:3 JUDGMENT ON JERUSALEM



ZEPHANYAH DOESN'T SAY WHO, (HINT: IT'S BABYLON) BECAUSE HE WANTS TO HIGHLIGHT GOD'S ROLE.

4:5 HOPE FOR THE REMNANT



2:4-3:8 JUDGMENT ON THE NATIONS & JERUSALEM



2:4-15 ACCUSATIONS AGAINST THE NATIONS

3:1-8 ...INCLUDING JERUSALEM!

GOD DOESN'T EVEN RECOGNIZE HIS OWN PEOPLE ANYMORE...



NOT TOTAL DESTRUCTION, BUT PURIFICATION
 "MY DECISION IS TO GATHER ALL THE NATIONS & POUR OUT MY BURNING INDIGNATION." (3:8)

3:9-20 HOPE FOR THE NATIONS & JERUSALEM

